

드디어 온다... 'Queen' 이효리의 귀환



드디어 온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 이효리가 4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6집 '블랙(Black)'을 들고 가요계로 복귀한다.

올해 초부터 꾸준히 컴백설이 제기됐던 이효리는 앨범의 완성도를 위해 오로지 음반 작업에 몰두했고,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담은 총 10곡을 완성했다.

그렇게 탄생한 타이틀곡은 앨범명과 동일한 '블랙'이다. 이효리가 직접 작사·작곡한 '블랙'은 음악적 변화뿐 아니라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함께 담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선공개된 '서울(Seoul)'이 좋은 반응을 얻은 만큼 이번 앨범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뿔 20년차 독보적 여성 아티스트 '이효리'

보이그룹과 달리 걸그룹은 활동 수명이 짧다. 결혼 후에는 은퇴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후 가정에 집중해야 하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외모와 몸

매관리도 힘들기 때문이다. 또 요즘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걸그룹이 쏟아져 나오는 가요계를 감안하면 웬만한 용기 없이는 컴백은 쉽지 않은 선택.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선배 가수들의 컴백이 이어졌지만 이렇다할 파급력을 낸 가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위할 수 있는 선택이다.

그런 점에서 이효리의 컴백은 굉장히 특별하다. 4년 전 발표한 앨범을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내려가 은둔생활을 했지만 꾸준히 음악 작업을 해왔기 때문. 이효리는 한층 깊어진 음악성에 자신의 이야기를 차

4년 만에 정규6집 '블랙'으로 가요계 복귀 선공개 '서울' 좋은 반응...대중들 기대감 커

곡차곡 담아내면서 음악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또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자신의 음악 행보를 꾸준히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예가 선공개곡 '서울'이다. 이효리는 '서울'을 통해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아련하고 몽환적인 감성을 선보였고 노랫말을 통해 대중과 공감을 시도했다. 뻔한 음악이 아니었기에, 대중은 '아티스트 이효리'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위안부 할머니를 향한 위로... 이효리만이 가능한

이효리의 새 앨범엔 특별한 것들이 있다. 일상을 관찰하고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노래들을 앨범에 수록한 것. 그동안 사회적, 정치적 발언을 과감하게 했던 이효리에게 이번 앨범에도 그런 느낌의 곡이 담길까 기대가 쏠렸던 상황. 아니냐 다를까 이효리는 수록곡 '변하지 않는 것'과 '다이아몬드'를 통해 일상을 되돌아보고 위안부 할머니를 위로했다.

이효리는 최근 출연한 JTBC '뉴스룸'을 통해 두 곡에 대해 진지하게 설명했다. 이효리는 수록곡 '변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제주에서 요리를 자주 하는데 이를 정다면 보통 상한다. 그런데 식빵은 3박4일이 되도록 밀정하더라. 무서웠다"며 "잡지에 나온 내 얼굴도 뽀얗게 포샵(포토샵)이 된 식빵 같았다. 거울 보면 많이 늙기도 하고 주름도 생기곤 했는데 대중이 보면 나만 늙었네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 싶어 만든 노래"라고 설명했다.

또 이효리는 수록곡 '다이아몬드'속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 편히 가시오 / 뒤돌아보지 마시오 라는 노랫말에 담긴 의미도 소개했다. 이효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노래다. 위안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보고 떠오른 노랫말"이라며 "권력이나 기업에 맞서 싸우다 힘없이 포기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많지 않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고 말했다. 음악을 통해 일상을 되돌아보고 위로를 건네는 그의 진정성이 특별한 노래를 만든 것이다.

▲ 20년차 이효리의 견제함... '블랙'에 담긴 자신감

'서울'을 통해 새로운 감성을 보여주고 '다이아몬드'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담았다면 타이틀곡 '블랙'을 통해선 카리스마 넘치는 이효리의 모습을 담아냈다. 세월이 흘러도 감출 수 없는 카리스마와 아우리를 음악으로 비주얼로 당당히 보여준 것. 티저를 접한 대중도 이효리의 압도적인 아우리에 극찬을 보내고 있다. 왜 이효리가 '퀸'으로 불리는지 그 진가를 스스로 증명할 셈. 또 색시하거나 청순 일찍이 걸그룹 시점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걸크러쉬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타이틀곡 '블랙'이 더욱 특별한 건 이효리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또 이효리만이 소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퍼포먼스 또한 준비된 상태. 앞서 공개된 티저 영상 속에는 광활한 사막을 배경으로 오아시스를 찾아 가는 이효리의 모습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이를 배경으로 들리는 기타 사운드와 힘있게 부르는 드럼, 베이스 사운드가 이효리의 보컬과 어우러져 곡의 스케일을 집약했다. 이효리에게 가능한 음악이란 점에서 그의 컴백은 더욱 손꼽아 기다려지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효리는 각종 예능을 통해선 친숙한 매력을, 앨범을 통해선 다채로운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효리는 20년을 넘어 앞으로도 계속 음악할 수 있는 가수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할 계획이다. 4일 오후 6시 공개.

SM+미스틱 '눈덩이프로젝트', 공개 5일만에 100만뷰



SM엔터테인먼트와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의 첫 컬래버레이션 예능 프로그램 '눈덩이 프로젝트'가 4일 Mnet을 통해 첫 방송되는 가운데, 이미 100만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3일 Mnet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네이버TV와 V LIVE(V앱)를 통해 첫 공개된 '눈덩이 프로젝트'는 공개 5일 만에 조회수 100만뷰를 돌파하며 인기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눈덩이 프로젝트'는 SM 엔터테인먼트와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의 전략적 제

휴 이후 양사가 함께 기획한 첫 번째 컬래버레이션 신개념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미스틱 소속 박재정의 SM 소속 NCT 마크를 향한 불타는 팬심을 시작으로 미스틱의 여운혁 피디와 SM의 이지 피디가 기획에 참여했다.

이어 미스틱 대표 프로듀서 윤종신과 SM의 싱어송라이터 헨리가 프로듀서로 합류해 '대형 프로젝트'를 예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러나 '성공한 덕후' 박재정 본인의 워너비 스타 마크를 만나기까지의 단계는 보는 이들에게 자못 감동 이입을 하게 만드는 경험을 선사하며, 박재정을 '국민 성덕'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더욱이 SM과 미스틱이 탄생시킨

윤종신-헨리-NCT마크-박재정이라는 '뮤직 어벤저스'는 네티즌들의 눈과 귀를 단숨에 홀리시킴에 충분했다. 윤종신 특유의 능청스러움, 헨리의 천재적인 음악성, 그리고 박재정과 마크의 순수한 우정은 색다른 만족감을 선사했다.

'눈덩이 프로젝트'의 제작진은 "눈덩이 프로젝트'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SM과 미스틱이 새롭게 시도한 도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 의미가 크다"면서 "내일 Mnet에서 첫 방송되는 '눈덩이 프로젝트'를 기대해 주시고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눈덩이 프로젝트'는 Mnet을 통해 4일 화요일 오후 9시 첫 방송될 예정이다. 또 5일에는 네이버TV와 V LIVE를 통해 7, 8회가 공개된다.

"女가왕 최초 6연승"...'복면가왕' 소향, 의미있는 퇴장



코어로 놀랐으며, 결국 가왕자리까지 오르게 됐다. 아싸가오리는 티삼스 보컬 김화수로 알려졌다.

세 가왕에 등극한 MC햄버거는 "많이 떨렸는데, 흥부자택과 함께

무대를 할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며 가왕에 오르게 된 소감을 밝혔다.

지난 2일 방송된 MBC '일밤 복면가왕'에서는 7연승에 도전하는 '흥부자택'의 모습이 담겼다. 이날 흥부자택은 비와이 '데이데이(Day Day)'를 선곡하며, 과감한 도전에

대응과 랩을 오가며, 객석 모두 절절할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 흥부자택은 정확한 박자와 귀를 사로잡는 보컬로 객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어렵게도 가왕 자리에는 오르지 못했고, 연승 행진은 여기에서 멈추게 됐다.

흥부자택을 꺾고 새롭게 가왕에 등극한 MC햄버거는 콜라이투더스 키이 'Missing You'를 선곡해 '빌리컬' 김혜연을 꺾었으며, 다음 라운드에서는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를 부르며 아싸가오리를 압도적 스

무대를 할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며 가왕에 오르게 된 소감을 밝혔다.

이러 흥부자택의 정체가 밝혀졌다. 가면을 벗고 소향이 등장하자 객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소향은 "출연하기 전까지 고민이 많았는데, 도전 후에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좋아해줘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비록 소향의 연승행진은 '6'에서 멈추게 되었지만, 그간 소향을 향해 대중이 갖고 있던 인식을 넘어 색다르고 과감한 무대를 보여주면서 퇴장했다는 것에서 더욱 의미가 있는 행보였다는 생각이다.

한편 MBC '복면가왕'은 나이, 신분, 직종을 숨긴 스타들이 목소리만으로 실력을 겨루는 음악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50분 방송된다.

어차피 1등은 '스파이더맨'? 예매율 1위



어차피: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한국 상륙 작전을 마쳤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 개봉을 이틀 앞두고 있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3일 오전 실시간 예매율 57.9%를 기록했다. 개봉 당일에는 60% 더 나아가 70%도 넘는 것으로 전망돼 '스파이더맨: 홈커밍'

오프닝 스코어에도 관심이 쏠린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아이언맨에게 발탁돼 시빌 워에서 활약을 펼치며 어벤저스를 꿈꾸던 스파이더맨이 세상을 위협하는 강력한 적 벌처에 맞서 진정한 히어로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은 액션 블록버스터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높은 예매율은 마블 세계관으로 돌아오는 스파이더맨을 향한 관객들의 뜨거운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달 30일 개최된 언론사 사회 이후 쏟아진 호평과 2일 직접 한국을 방문한 톰 홀랜드, 제이콥 패럴런, 존 앳츠 감독의 완벽한 팬 서비스 역시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개봉과 동시에 극장가의 새로운 흥행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7월 스크린을 뒤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4일 화요일 (음력 5월 11일)



▶**운세** 36년생 바깥출입 삼가 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 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 한다. 84년생 꿈을 접지마라.



▶**운세** 37년생 외출을 삼가라. 49년생 노력과 인덕이 비례한다. 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해라. 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운세**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0년생 산행을 삼가라. 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



▶**운세**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5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



▶**운세**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 52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88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잃지마라.



▶**운세** 41년생 가지가 집 주위를 맴돈다. 53년생 금전거래에 주의하라. 65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77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을 이룬다.



▶**운세** 42년생 여유있게 행동 54년생 믿음을 유지하면 복을 받는다. 66년생 뜻밖의 재물복이 있다. 78년생 교통사고에 대비하라. 90년생 책임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



▶**운세**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



▶**운세**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4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 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



▶**운세** 33년생 출입을 삼가라. 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 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 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운세**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 46년생 뜻밖의 재물이 있다. 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 70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방망이를 쥐가 듣는다. 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



▶**운세** 35년생 미련을 버려라. 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1년생 무리수는 금물이다. 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